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구원 제목 : 의의 종이 누리는 자유 성경: 로마서 6장 15-23절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6:15-23)

성경에는 종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역사적으로도 종들이나 노비들이 사라진지는 얼마되지 않는다. 성경에는 종들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섬기는 모습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에서의 ‘종’의 의미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로서의 종’이다.

‘죄’에게 순종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는 죄의 종이다.

‘의’에게 순종하여 의를 행한다면 그는 의의 종이다.

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곧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니, 그는 마귀의 하수인이 된다.

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

로마서에서는 의도 두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사람의 의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다. (사람의 의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느냐를 가지고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데, 마귀는 얼마든지 스스로를 의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존재이며, 사실은 이런류의 이단들도 있다.)

굳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의에는 주권자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은 순종하는 동력으로 ‘사랑과 진리’를 사용한다. 사실은 옥석을 구분하는 열매는 ‘의’가 아니라 순종의 동력이 되는 ‘사랑과 진리’이다.

마귀는 순종의 동력으로 ‘협박, 거짓말, 유혹, 폭력, 위력, 죄책감, 강압, 비아냥, 비난, 선동’ 등의 악한 것들을 사용한다.

나는 과연 무엇에 의해서 순종하는지를 가늠해 보면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람마다 본질적으로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철저히 이용하며 사람들을 죄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한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익숙해서 죄에게 순종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이다. 그리고 혹독한 댓가를 지불하면서 평생을 지내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자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준다.

하나님은 죄에 해악에 대한 긴급조치로 율법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율법에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죄의 저주를 피하고 그 해악에 대비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죄를 깨닫게’하는 것이다. 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저주가 되는 것, 옳아매는 짐이 되는 것, 그 결국은 사망이요 멸망이 되게 하는 것이 죄다.

율법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되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게 하였다.

그러나 마귀는 율법을 공격하여 율법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본래의 기능 보다는 엉뚱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하나님도 가만있지 않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율법을 지킬 것을 격려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였으며, 율법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메시야를 계시하여 그가 결국에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시고, 사람들이 지은 죄의 댓가를 지불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누구든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칭의) 이렇게 함으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구원. 이때 율법은? 칭의를 얻은 자들이 자유롭게 이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의 법.(이제 비로소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최고 선하고 완벽하고 자유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벗게 되었고, 죄의 저주와 그 악한 결과로부터 해방되어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복음 또한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려는 자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 죄를 고백해야 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려면 주일성수를 해야 한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떼 먹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 새벽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하더라.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더라.’는 등등의 말들이 단순하게 세력을 얻게 되었다. 물론 세심하게 살펴보면 근거없는 말들은 아니지만,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율법주의적으로도 흐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여전히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문화나 가치관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였다.

복음에 율법주의가 끼어 들어오면 당연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하게 되고, 헌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마련이다. 특히나 불순종의 습관이 많거나, 유교의 영향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인격적인 부담감이나 장애가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회개나 반성,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용기 등에 있어서 매우 부담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복음을 부패시킬 계락을 마련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구원파’ 이단이다. (배경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가장 이단스럽지 않으면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단이 되었다.)

오늘은 소위 ‘구원파’로 알려진 이단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원래는 권신찬이라는 장로교목사가 어렵게 어렵게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 구원의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라,

이 감격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하였지만, 당시의 교인들은 자기처럼 깨닫는 것 같지 않아 보였다. (권신찬씨는 위의 복음 율법주의 문제로 목사직도 그만둘까 고민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깨닫고 교회를 탈퇴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그들 중에 세명이 각기 다른파로 발전하게 되었다.

권신찬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씨가 사위로 되면서 변질)
(복음교회+침례)

이요한씨가 이끄는 대한예수교침례회(생명의말씀선교회)

박옥수씨의 기쁜소식선교회 (제일 기성교회인척 하는 이단. 구원파에서도 이단으로 여겨짐.)

각기 다른 교파지만, 그 뿌리가 되는 교리가 같음.

유병언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찌기 사업에 눈을 돌려 세를 확장함.(가장 구원파스런 이단)

서로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교리들이 대동소이하다.

특히 박옥수씨의 기쁜소식선교회는 장로교의 교리와 똑같다고 주장하고 전혀 이단이 아닌척 하지만, 핵심적인 이단성 교리는 공공연하게 주장하지 않고 교묘하게 내부용으로 사용한다.

-차라리 그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한다면 이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단성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구원관.

겉으로 보기에는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복음과 동일하다고 여겨지는데, 이것이 속임수의 진수. 차라리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그들은 구원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틀린말은 아니지

만, 야바위꾼들이 하는식의 속임수에 불과함.

-성경은 율법-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구원의 완성-성령의 임함
-성령으로 전도-성령으로 인한 믿음수여-믿음으로 회개(자신이 죄
인임을 인정함.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 모든 성도들은 죄사
함을 믿고 회개한다. 정죄감에서 회개하는게 아니다.)-의의 종이 되
기로 결단함-현저히 죄를 이기고 의를 힘입어 살아감(성화-손을 씻
음)

-구원과 (기독교 율법주의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고민이 많
음)-이미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깨달음-회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가시적으로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깨
닫게 됨 -영혼을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나 육체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감.

문제점; 회개에 대한 오해. 회개가 어려운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격.
회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함. 나중에 자백이라는 단
어를 사용하게 됨.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게 아니라,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가르침.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회개하기 싫은 사람들
에게 면죄부를 발부하는 효과를 가져옴.)

-기독교 믿음과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회개. 가장 거룩하고 변화의
구심점이며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는 핵심적인 신앙여정인 회개
를 무기력화시킴. 회개의 핵심은 십자가복음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
된다. 율법주의적 회개가 아닌. 회개하고 믿는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단순한 순서를 구원파는 어지럽히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복음과 구원을 강조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핵심을 빼 구원론을
주장하는 꼴이 됨. (회개가 빠진 기독교는 경건의 힘이 빠진 힘없는
율법주의일 뿐.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가 될 뿐.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처럼 구원파적 신앙형
태에 물들어 있다. 그래서 구원파가 다가오면 속수무책이 됨.)

-결국 주기도문도 거부하게 됨.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

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기도문 때문에.

-기성교회의 복음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기성교회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 이미 기성교회에 있다는 것을 부러 부정함.

-그래서 기성교회의 성도들 중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믿음의 도리를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들의 주요 포교 대상.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어지럽혀서 신앙을 방해하기 때문임.

-율법주의적인 신앙형태를 무시하면서 결국 전체 경건생활의 거룩성을 훼손함. 기독교 율법주의라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신앙문화를 형성하게 됨.(초창기에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런 기독교율법주의가 전파됨. 지금도 구원파식 신앙형태가 한국교회에 남아있음.)

(J.N. Darby-영국 성공회 신부로서 우리나라 복음교회의 뿌리가 됨. 그의 세대주의 이론들이 이단들의 뿌리가 됨.-세대주의, 적그리스도론, 말씀에 짝이 있다는 이론, 성경본위이론-문자적해석의 오류, 우상금지-십자가를 우상으로, 성령의 역사 부인, 교회와 예배 부인, 신비를 기복으로 몰아부침.)

-이런 이상한 이론들이 아직도 한국교회에서는 버젓이 경건한 신앙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이 현실.

-구원파는 한국교회가 가장 헤갈려하는 이단이다.

-다행히 통합측을 위시로 장로교단들이 신실한 신앙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아멘.

<자료>

“첫째, 회개와 믿음이 빠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둘째,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한다. 셋째,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으로 간다고 한다. 넷째, 정통교회의 제도(장로, 집사)와 예배 형식, 주일성수, 십일조, 새벽기도, 철야기도, 축도를 무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구원과의 세 계파를 모두 이단이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

▲ (구원파는) 하나님의 영성과 초월성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성과 임재성은 무시한다. (유교적 구조)

▲ 그리스도의 신성은 강조하나 인성은 격하시키며, 죄 사함의 은혜는 강조하면서 율법의 교훈은 무시한다.

▲ 피동적 깨달음에 의한 구원은 강조하지만 의지적인 회개와 인격적인 신뢰(믿음)를 배제한 구원은 기도와 찬양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 성경적인 믿음(faith)에는 신뢰(trust)와 확신(belief)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원파의 믿음에는 지식과 이해와 깨달음의 요소가 들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헌신이 빠져 있다.

▲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임과 교제를 강조하여 자신이 속한 교회가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자파 교회에 붙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들림을 받는다는 극단적 세대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 종교를 빙자해 상습사기를 치고 있다는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 유명언의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고, 진정한 기도는 성도의 교제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가 주도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며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 구원파에서 주기도나 축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찬양이 아니다)은 죄 사함과 구원, 그리고 교회를 주제로 한 찬송일 뿐 경배와 삼위일체를 주제로 한 찬송은 거의 부르지 않는다.

▲ 표면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지만 우화적이고 풍유적인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다.

▲ 예수님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교주가 강조되고, 정통교회의 바른 교훈보다 교주의 깨달음에 근거한 다른 복음을 강조한다.

▲ 일단 죄 사함을 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등을 들었다.

장 원장은 특히 “이번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 원인 중에 중요한 하나는 구원파의 교리가 이런 도덕불감증 사고를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며 “어쨌건 이단·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부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했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